

5월 12일 일요일

오늘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갔다,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보니까,
아침에 눈뜨기 힘이 들었는데 저절로 눈이 뜨기 시작했다.
교회가 끝나고 친구들과 저녁 하루종일 놀았다. 친구들과 놀다보니
시간은 더 빨리가는 것 같다. 내가 좋아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보니까
시간은 제법 ~~빠~~ 느리게 지났다. 저녁은 맛있는 소리로 귀머지였다. 맛있었다.
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일기를 쓰게 되었다. 오늘 하루를 생각
해보면 하루 인생을 즐기게 된다. 공부 중 한글 그렇게 보니까!
공부를 안 할 것이 더욱 후회된다.